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
배포일시	2023.10.4(수)	담당부서	한국어교육	
연락처	323-936-3025/seung822@kccla.org	담당자	노승환	

LA한국문화원, [2023 미주 한국어 시낭송 대회] 성황리 개최



[2023 미주 한국어 시낭송 대회 사진자료]

LA한국문화원(원장 정상원)은 제577돌 한글날과 2023캘리포니아주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해 미국 거점 세종학당(소장 안형미)과 공동으로 [2023 미주 한국어 시낭송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한글의 아름다움과 한국 시와 문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국어 및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준비된 이번 대회에는 캘리포니아 뿐만 아니라 하와이, 위스콘신, 오하이오, 텍사스, 펜실베니아 등 미 전역 24개주에서 120명이 참가하였으며, 한국어 교육전문가, 문학인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한국어 발음, 시의 이해와 해석, 낭송의 리듬과 감성 등을 기준으로 총 12명의 입상자들을 선정하였다.

영예의 대상은 한용운의 '알 수 없어요'를 낭송한 셸비 고글(Shelby Gogal씨가 수상했다. 펜실베니아 출신으로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지금은 한국어 통역사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인 수상자는 "이 시의 내용은 아주 자연적이고 신비로운데 결국엔 어떤 사람의 외로움에 대해 쓴 시인것 같다"며, "너무 곱고 감동적인 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 심사위원들은 "자신을 소개하는데 당당하고 한국어 발음도 좋고 발표력도 뛰어나고 어려운 시를 읽고 소화하여 자기만의 소리로 낭송하는데, 진심으로 감동했다"며, "'서시'의 별을 부각하려고 캄캄한 밤에 밖에 나가 낭송 영상을 찍고, '파도'를 공감하게 하려고 바닷가에서 낭송을 하고, '꽃 한송이'에 나오는 꽃씨를 의미화 하기 위해 까만 꽃씨를 들고 낭송하는 등 최선을 다하려 애썼던 그들의 무대에 박수를 보낸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상원 LA 한국문화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단순한 대회를 위한 시 낭송이 아니라 우리 한국시가 계속해서 미 전역에서 널리 알려지고 읽혀지길 바란다"며, "앞으로 시 낭송 대회와 같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 우아하고 아름다운 한글 자모를 통해 표현되는 한국 시문학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고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2023 미주 한국어 시낭송 대회] 개요

1. 추진 일정: 8.21(월) ~ 10.04(수) ※ Pacific Time (PT) 기준

가. 접수 기간 : 온라인 접수 기간 : 8.22(월) ~ 9.22(금)

나. 온라인 1차 & 2차 심사 : 9.25(월) ~ 9.29(금), 입상자 발표 : 10.02(월) ※ 홈페이지 발표

다. 온라인 시상식: 10.04(수) 16:00 PT

2. 참가 대상

가. (접수 당일 기준) 18세 이상자로서, 미국 내 전체 세종학당 수강생 또는

나.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미국 내 한국어 학습자(대학생/일반인 포함)

3. 공모 형식: 30초 이내의 한국어 자기 소개 및 추천시 20편중 참가자의 한국어 학습 수준에 맞는 한국시를 선택하여 시낭송 영상 제작 후 이메일 접수

<2023 온라인 한국어 시낭송 대회> 주요 입상자 명단

▶ **대상(1명)** : 셸비 고걸 (Shelby Gogal) <알 수 없어요>

▶ **1등(2명)** : 수사나 클라크(Susanna Clark) <모란이 피기까지는>, 데번 바워(Devon Bower) <꽃>

▶ **2등(3명)** : 애슐리 하우스(Ashley Houser) <흔들리며 피는 꽃>, 크리스티나 더크스(Christina Dirkes) <사슴>, 완 아비딘(Wan Abidin) <춘일>

▶ **3등(6명)** : 윌프레도 페레즈(Wilfredo Perez) <흔들리며 피는 꽃>, 칼리 테일러(Carly Taylor) <나와 나 타샤와 흰 당나귀>, 켈리 핑크햄(Kelly Pinkham) <그리움>, 제니 드와이어(Genny Dwyer) <서시>, 저넷 싸이(Jeannette Tsai) <추억>, 그랜트 웬(Grant Wen) <즐거운 편지>